

리쌍-철거 곱창집 '끝나지 않는 전쟁'

뉴스인사이드

리쌍-싸이, 논란의 건물 다시 가보니

곱창집 대표, 철거 건물 매일 출근 '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집회 계속'

31일 떠나는 싸이 임차인 가계엔 '오래된 단골집 가질 권리' 스티커



논란 이후 연예인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됐을까. 7월18일 철거된 리쌍 소유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 앞(왼쪽사진)은 여전히 전 임차인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고, 싸이의 한남동 건물 내 테이크아웃드로잉은 합의로 8월말 가계를 비운다. 이경후 기자

연예인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역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월주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달 31일 자리를 비우는 싸이 건물의 서울 한남동 미술관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과 7월18일 철거 집회가 이뤄진 뒤 집회를 이어가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빌딩의 '우장창창' 곱창집이 그 사례다. 논란 이후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았다.

●테이크아웃드로잉, 합의 그 후

테이크아웃드로잉이 들어선 건물은 싸이가 2012년 매입할 당시 78억5000만원의 시세였다. 하지만 최근 130억원으로 치솟아 약 65%나 올랐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이 2010년에 들어설 시점에 이 지역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으로 꼽혔다. 하지만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영화 '건축학개론'에 등장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면서 자본의 논리에 휘둘러 들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8월부터 건물주 사이와 소송 등 분쟁을 겪었다. 싸이 직

전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한 뒤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했다. 법원은 2013년 12월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싸이가 건물주가 된 후 재건축이 보류된 자 철거 집행을 두고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영업하기로 올해 4월 합의했다. 공동운영자인 현대미술가 최소연씨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그간 과정은 대외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곳은 여타 다른 미술관 카페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어느 평화로운 카페처럼 최씨가 가게 입구 유리창을 닦으며 손님을 맞았다. 다만 가게 한 쪽엔 '작고 오래된 단골집을 가질 권리'라는 글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삼모)'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맘삼모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 최씨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재난연구소'라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기도 하다. 최씨는 합의 이후에도 꾸준히 맘삼모 활동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31일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최씨는 "내가 세상에 묻고 싶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며 씩씩하게 말했다.

●리쌍과 철거된 '우장창창'의 끝까지 않는 분쟁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리쌍 건물 주변은 지난달 18일 건물 내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 집회로 어수선했다. 이후 설치된 가림막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문과 함께 임차인인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글도 내걸렸다.

서 대표는 2010년 11월 리쌍 건물의 1층에서 곱창집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고 6개월 뒤 계약만료가 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때 갈등을 빚은 양측은 2013년 8월 서 대표가 1층을 비우는 대신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서 대표는 합의 녹취록을 근거로 합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리쌍 측은 이를 거절했고 양측은 소

송으로 맞섰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다 2심도 중도 계약이 만료되면 시점에서 대표는 계약갱신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퇴거 명령을 내렸다.

우장창창은 이미 철거됐지만 서 대표는 매일 가게로 향하고 있다. 서 대표는 "가게 앞에서 집회를 꾸준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근황을 말했다. 그는 리쌍과 오랜 기간 분쟁하면서 맘삼모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실제 2013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의 환상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 상환신청을 각 지역별로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는 개정 작업을 이었다. 그는 "상인들이 법을 잘 몰라도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리쌍 측은 철거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물 관계자는 "리쌍 컴퍼니 사무실로 올라갈 수 없다"고 했고, 리쌍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리쌍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마치 모녀처럼...다정한 김소현·라미란

이렇게 표정이 온화할 수 있을까. 김소현(왼쪽)이 라미란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공개했다. 3일 개봉하는 영화 '덕혜옹주'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 라미란은 덕혜옹주(손예진)의 궁녀이자 그의 결을 든든히 지켜주는 복선 역을, 김소현은 어린 덕혜옹주다. 촬영현장에서 찍은 사진에서 라미란은 따스한 표정이다. 옹주로 분한 김소현의 의상이 제법 어울린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라미란 #김소현 #인생사건 #엄마와 딸? #덕혜옹주 #남나다정 #귀신과인사



오늘의 채널A



아빠 김홍국 스케줄 따라나선 주현양

가수 김홍국의 딸 주현양이 아빠의 말 한 마디에 '프로 불찰러'가 된 개그맨 조세호와 만난다. 이들의 만남에 앞서 김홍국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을 내심 안타까워한다. 미안한 마음에 결국 딸에게 '아빠의 스케줄에 함께 동행할 것'을 주문한다. 김홍국은 조세호와 한 행사 무대에 나선다. 조세호는 주현 양을 만나 "실물이 훨씬 예쁘다"며 반가워하며 "갈창을 깔았는데 내가 더 작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두 사람은 길게 줄 선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준다. 주현양도 아빠의 사인을 받는다. 김홍국은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사인을 받는다"며 놀란다. 밤 9시30분.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정용택 감독 "억울한 임차인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젠트맨은 없다'를 제작 중인 정용택 감독(사진)은 2010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과 재개발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의 문제를 다루었다. "연예인이 건물을 사면 해당 건물과 그 주변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 '연예인이 어느 건물을 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부동산과 주변의 시세가 가격

이 뛰고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세력도 있다고 여긴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예술가들이 흥대 인근을 예쁘게 만들면 인구가 많아지고 자본이 들어

왔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예술가가 밀려나는 상황에 내가 들어있구나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미 '젠트리피케이션' 논쟁을 이끈 서울 동교동의 식당 두리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파티51'을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정 감독은 당시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한 내보내려 하면 건물주가 큰 보상을 내야 한다. 한 곳에서 50년 이상 장사를 하는 가게가 존재하는 것도 그 덕분이다. 이런 제도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없을지 하는 것이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이경후 기자

TV 프로그램 3일(수)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channels A, KBS1, KBS2, MBC, SBS, and various genres like Drama, Documentary, and Sports. Includes a large advertisement for '치킨' (Chicken) with images of various chicken dishes and a person in a yellow shirt.